

10월 크레딧 시장 전망 (요약)

보이지 않는 위험

9월, 국고채 금리 하락,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양적완화 축소 시행이 지연되면서 금리 하락.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장기물 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크레딧 채권은 국고채 금리 하락폭을 따라가지 못해 스프레드 확대.

시장성 자금 조달이 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회사채와 기업어음 판매를 제한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10월부터 시행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 수요에 기반한 단기 조달 비중이 높은 동양 그룹의 차환 위험 증가. 일부 대기업 계열은 여신을 제공하는 채권은행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시장성 자금 조달을 선호하고 있으나 다수의 투자자로 분산된 채권자 집단은 유사시 협의체 구성이나 대체 차환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채권은행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기도 어려워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이 불가능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보다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고위험 종목 투자시 차입금 규모와 아울러 차입금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10월 크레딧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10월 채권시장은 이연된 Tapering 이슈와 미국 정부 부채안 협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크레딧 채권 시장은 지표가 되는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관망세를 보이며 스프레드는 약세가 지속될 전망. 그러나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우량 크레딧 채권 매수 전략은 여전히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유효할 전망.

주요 채권 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3년) 추이



자료: Infomax, HMC투자증권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